**행위에 의한 심판 / 존 스토트**



신약 성경 전체는 이것을 가르친다.

곧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모순된 말이 아니다.

사랑의 선한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개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이다.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선행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약0218.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하되,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행함들을 가지고 있느니라,

네 행함들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나는 내 행함들에 의한 나의 믿음을 네게 보여 줄 것이니라.

약0220. 그러나, 오 속이 비어있는 자여,

행함들이 없는 믿음이 죽어 있는(생명 없는) 것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심판 날은 공개적인 날이 될 것이므로 공개적인 증거, 즉 동정심을 보이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여러 번에 걸쳐 이것을 가르치셨다.

마1627.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며,

또 그때에 그가 낱낱의 자에게 자기 행실을 따라 보상(보응)함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이다.

(존 스토트가 지은 "진정한 기독교" 중에서...)

Tags

회개 청종 믿음 의심 내주

심판 판단